

하박국 1 장 12 - 17 절 : 하박국이 다시 호소하다

12 주님,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13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시므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14 주님께서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바다 피조물처럼 만드시니, 15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 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쟁이로 끌어 모으고는, 좋아서 날뛵니다. 16 그러므로 그는 그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쟁이에다가 향을 살라 바칩니다. 17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 이어 무자비하게 못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 하박국 1 장 12 절부터 2 장 20 절까지는 하박국의 두번째 질문과 탄식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 부분인데 특히 오늘은 두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대목을 다룹니다.
- 하박국의 질문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의 첫번째 응답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부정과 부패를 다루기 위해 더 악한 바빌로니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동의 할 수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 하나님이 바빌로니아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형태로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12 절 첫 부분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신 분이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를 일으키셨다' 라고 할 때, '그' 는 바빌로니아를 의미합니다. '그를 일으키셨다' 또는 '채찍으로 삼으셨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박국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13 절에서 '배신자'라는 말로 의미 전달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거짓된 자'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남을 속이고 배반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나타내는데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유다가 바빌로니아보다 좀 착한 민족이란 말을 하면서 악한 민족을 데려와서 좀 더 착한 민족을

별하시는 하나님께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 14 절에서 '바다 피조물' 은 바다 바닥을 기어 다니는 생물을 의미하는데, 살짝 멸시당하는 존재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유다 백성을, 올바른 리더가 없어서 헤매는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 바닥을 기어 다니는 보잘것 없는 존재에 비유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에게 이런 천대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15 절의 '악한 대적' 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유다 백성들을 낚시나 투망에 걸린 물고기처럼 취급한다는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유는 잡힌 물고기나 바다 생물들이 아무런 항거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인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특별히 '좋아서 날뛵니다' 라는 표현과 맛 물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 15 절과 16 절에 나오는 '쟁이' 라는 말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의 하나인데, 원뿔 모양으로 위에 몇 발의 버리가 있고 아래에는 추가 달려 있어서 물에 던지면 짝 퍼지면서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물이 바닥에 닿은 후 천천히 버리를 당겨서 그물 속에 든 물고기를 건져 올려서 잡습니다.
- 16 절은 앞선 11 절과 연결하여 해석을 해야 합니다. 11 절에서 힘, 즉 군사력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는 신이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처럼 16 절에서는 그물이 군사력에 비유됩니다. 그래서 그물에 고사를 지내고 쟁이에 향을 살라 바친다는 표현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듯이 적들을 다 잡을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신처럼 신봉하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상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 17 절에서 하박국은 '무자비하게 못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무자비한 일이 벌어지도록 그대로 두시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하박국이 하는 질문처럼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하나님께 종종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처구니 없는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악이 기승을 부리도록 그대로 두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한 존재나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주권자로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을 다스려 가시고 끝내는 그분의 공의를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